

Vol.52

JULY
2020

07

흔들리지 않는 주관,
HRD는 '확신'이다

| HRD 7월의 이슈 |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개편
- 디지털 신기술분야 핵심 실무
인재 양성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최우수 공동훈련센터

22개소 선정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수

4,860천 명 →

5,002천 명



청년층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42.2%

실업률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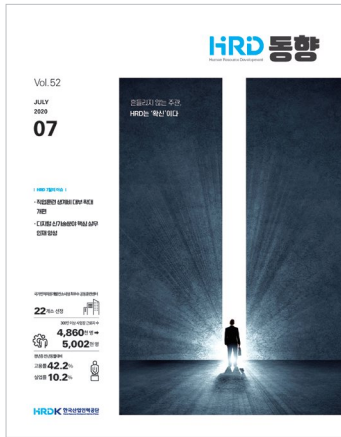


자신의 힘과 젊음을 믿어라.

‘모든 것이 내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

- 앙드레 지드





cover story

선택의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믿음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당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통권 제52호

발행일 2020년 7월 21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전화번호 052-714-8322

구독신청 및 문의 1999sss@hrdkorea.or.kr

디자인·인쇄 디자인글꼴

Contents

정책동향

- 0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05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분야 장관급 회의」 참석
- 06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개편
- 07 「2020년도 고용형태 공시 현황」 공개
- 08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7.8.~7.28.)

현장동향

- 10 대·중소 상생 및 국가 전략분야 인재양성 등 2020년 최고의 공동훈련 우수사례 발굴·선정
- 11 16개국 외국인근로자 송출국 대사가 참석한 『EPS Conference in Tongyeong』 개최
- 11 고용노동부 차관,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장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조치상황 점검
- 12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기능경기대회 개선방안」 마련
- 13 「2020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발간
- 13 「4차 산업혁명에 향한 신중년의 도전」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신중년 경력설계 방향 제시
- 14 고용노동부 장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2기 수료식 참석
- 14 감정노동자 직무스트레스 관리교육 사업주훈련으로 지원
- 15 「포스트 코로나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 15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학습병행 특별조치 시행
- 16 중형고용센터 등 72개소 추가 설치, 고용서비스 선제적 대응
- 16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수험자에게 복지환원서비스 제공
- 17 고용노동부, 민간 혁신기관·기업·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분야 핵심 실무인재 적극 양성

HRD통계

- 18 2020년 5월 고용동향

연구동향

- 20 기술혁신을 반영한 장기 인력수요 전망
- 20 지리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혁신 공동체 활성화 방안
- 21 직업계고 전문교과 온라인 실습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
- 21 전공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

기관동향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23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반복적으로 지정요건 위반하는 직업훈련시설 관리 강화

» 2020년 7월 7일, 고용노동부



정부는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지정요건을 위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제재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교사 자격 관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강화
(일부 지정요건을 1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

◆ 훈련교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과대·거짓광고를 하는 등 일부 지정요건을 1년 내 3회 이상 위반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은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이 강화된다.

* 기존 3회 이상 위반 시 ‘훈련정지(2~6개월)’만 가능, 2019년 기준 3회 이상 위반사례 7건

2.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직업훈련교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 한국기술교육대학이 훈련교사의 교육이력 관리 및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훈련교사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직업훈련교사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업무를 수행함에도 그간 훈련교사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어 교육이력 및 자격 조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3. 직업훈련교사 자격발급시 한국기술교육대학 의견청취 근거 마련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훈련교사 자격발급 시 자격충족 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한국기술교육대학의 검토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실무경력, 교육연구이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훈련교사 자격을 발급하며, 특히 실무경력에 대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별 정해진 실무경력 인정요건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참고
- ②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직업훈련시설 관리가 내실화되고 직업훈련교사 자격발급 및 교육이력 관리가 체계화되어 보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고용분야
 장관급 회의」** 참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노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조**

» 2020년 7월 7일,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7일(화) 19시(한국시간)에 화상으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분야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현황 및 정책을 비교·분석한 「2020년판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20)」 발표를 계기로 회원국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노동시장의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역설하면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또한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노동정책 대응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다.

- ①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현재의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고용유지지원금 예산(351 → 21,632억 원))
- ②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총 1.7조 원 규모의 소득지원 시행 중
- ③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관광·여행·항공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④ 고용악화가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약 55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지상 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또한,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화·디지털화 등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소개했다.

- ① 디지털·그린 분야의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직업훈련·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
- ②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취약계층에게 구직활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프로그램(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내년 시행을 준비중

이날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억제 및 극복을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정책대응 및 국제사회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번 회의에선 논의된 내용은 올해 OECD 각료이사회 본회의(10월 말)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개편

무급휴직자, 특고, 휴·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 참여가능



» 2020년 7월 8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7월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및 이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인데,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다.

* 「고용안정 특별대책(4.22)」을 통해 발표

지원 대상 확대 적용

-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개편 내용

- 1 소득요건은 가구원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2 대부한도도 월 2백만 원(1인당 총 1천만 원)에서 월 3백만 원(1인당 총 2천만 원)로 확대 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1인당 총 3천만 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3 한편, 대부기간도 기존에는 훈련 기간 동안 지원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신속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훈련 종료 후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생계비 대부 신청 및 대부 절차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실(1588-0075)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생계부담으로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안다.”고 전하면서,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약 963억의 제3차 추경예산이 통과된 만큼, 실업·휴직·폐업한 분들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 대상 1만 8천 명 확대, 추경예산 약 963억 편성

「2020년도 고용형태 공시 현황」 공개

- 300인 이상 사업장 3,520개소 공시(공시율 100%), 근로자 5,002천 명
- 소속 근로자 81.7%, 소속 외 근로자 18.3% 구성



» 2020년 7월 9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공시제」의 공시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의 2020년도 3월 말 기준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했다.

<참고> 고용형태공시제 개요

- 1 공시대상: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기업단위)
- 2 공시방법: “워크넷” www.work.go.kr/gongsi
- 3 공시시점: 매년 3.31. 기준 현황을 4.30.까지 입력(6.12.까지 보완기간 운영)
- 4 고용형태: ① 소속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②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공시기업 및 근로자

- ◆ 올해에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은 3,520개소이며(공시율 100%), 이들 기업이 공시한 전체 근로자 수는 5,002천 명으로 집계됐다. 규모별 기업 수의 비중은 300~499인 44.4%, 500~999인 32.1%, 1,000인 이상은 23.5%로 나타났다. 한편, 공시한 전체 근로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2.9%, 142천 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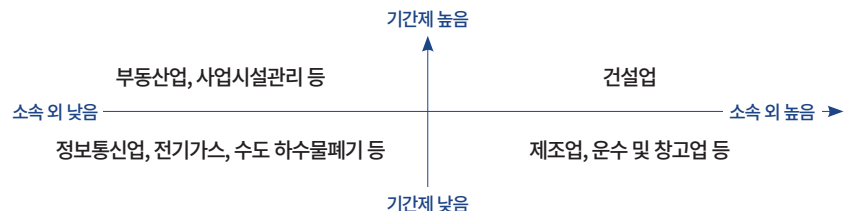
**연도별 공시 근로자 수: (2018) 4,860천 명 → (2019) 4,860천 명 → (2020) 5,002천 명

고용형태 공시현황 총괄

- ◆ 올해 300인 이상 기업이 공시한 근로자는 5,002천 명으로 소속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는 4,089천 명(81.7%), 소속 외 근로자는 913천 명(18.3%)이다. '19년과 비교하면 소속 근로자의 비율은 0.2%p 감소했는데, 소속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0.3%p 감소했으며(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의 감소에 기인), 기간제 근로자는 0.3%p 증가했다.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 상세(기업규모별 / 산업별)

- 1 기업규모별 상대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500인 미만과 5,000인 이상 기업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산업별 올해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을 소속 외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비율에 따라 산업별로 4개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7.8.~7.2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특고 산재보험료 경감근거 신설 등



» 2020년 7월 8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7월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1.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주요내용

- 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 * 산재보험 적용직종(14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 ②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 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하였다.
- ③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
- ④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가 지급될 예정이다.

 - 실질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 근로자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특고에 대해 출산전후휴가도 지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2.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등

- ① 이번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에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②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할 예정이다.
 - * 출산전후휴가급여: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 임금의 100%(월 200만 원 상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마지막 30일)
- ③ 또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3. 향후 계획

- ① 고용노동부 임시정 차관은 “이번 입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금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검토할 예정이고, 입법예고 이후 절차도 철저히 준비하여 국회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②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중소 상생 및 국가 전략분야 인재양성 등 2020년 최고의 공동훈련 우수사례 발굴·선정

▶▶ 2020년 6월 16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6월 16일, 울산 더엠컨벤션에서 개최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최우수 공동훈련센터 시상식에서, '19년 성과에 대한 정량(훈련실적 달성률, 취업률 등), 정성(협력기업 HRD지원 등) 등 객관적 평가로 선정된 최우수 공동훈련센터 22개소에 대한 선정패를 수여하였다.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운영한 현대로템과 협약기업 직무분석 기반으로 수요맞춤형 훈련을 제공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22개소를 올해 최고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하였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이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훈련협약을 맺고 자신이 보유한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여 대·중소 기업 상생기반의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우수 공동훈련센터 현황(22개소)]]

<대중소 상생분야 12개소>

- LG전자(주) ▪ (주)포스코 ▪ 현대로템(주) ▪ 이영산업기계 ▪ 삼성 SDI
- (사)한국선급 ▪ 한국수력원자력(주) ▪ 르노삼성자동차(주) ▪ 쌍용자동차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주)현대미포조선 ▪ 현대중공업(주)

<국가 전략분야 10개소>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 인천테크노파크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 부산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오늘 수상한 공동훈련센터의 성과를 격려하면서, “정부의 직업훈련 확대를 위한 최우수 공동훈련센터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대기업 등 역량있는 공동훈련 센터를 중심으로 유·무급 휴직자 대상의 고용유지와 연계된 직업훈련 지원의 확산이 필요하며, 아울러 중소기업사 재직자 대상 재택근로, 디지털 융합훈련 등 K-Digital 시대에 부응하는 공유훈련 인프라로서 공동훈련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

* **16개 송출국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16개국 외국인근로자 송출국 대사가 참석한 『EPS Conference in Tongyeong』 개최

▶▶ 2020년 6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통영 스탠포드 호텔에서 고용허가제 16개 송출국* 대사 및 노무관 등 80여 명이 참석하는 『EPS Conference in Tongyeong』을 개최했다.

금년 행사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공단, 송출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안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조치사항 및 송출현황을 공유하고 위기극복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국제경제와 고용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고용허가제 관련 기관 간 공동협력을 강화해 각 국가의 고용시장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험생 코로나19감염예방조치확인내용>

- 시험실, 화장실 손잡이 등 검정 시험장 사전 방역 조치 실시 여부
- 비접촉식 체온계 활용 수험자 전원 발열 체크 여부
- 시험장에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감염 방지 물품 비치 여부
- 시험장소 수험생 간 거리 1.5m 이상 확보, 책상 지그재그 배치, 창문 개방, 감독관 사전 배치 여부 등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 마련 여부

고용노동부 차관,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장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조치상황 점검

▶▶ 2020년 6월 13일,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13일(토), 2020년 제1회 및 제2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통합 필기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서울 대왕중학교를 방문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상황을 점검했다. 임 차관은 전기산업기사 등 18개 종목 506명이 응시한 대왕중학교 2층 입구에서 시험실에 들어가는 수험생의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여부와 수험생들의 발열 확인 상황을 살폈다.

학교 2층에 마련된 발열자 및 호흡기 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둘러보고 3~5층에 있는 일반 시험실에 둘러 수험생 간 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 있는지와 창문이 개방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중단되었던 제1·2회 시험을 통합해서 치르면서 수험생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5일간 분산(▲ 6.6~6.7, 기사, ▲ 6.13~6.14, 6.21. 산업기사-서비스)해서 시행하였다.

임서정 차관은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도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철저한 감염병 예방조치로 수험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업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기능경기대회 개선방안」 마련

» 2020년 6월 24일,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6월 24일 개최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1966년 처음 시작된 기능경기대회는 지난해까지 35만 9천여 명이 참여하여 7만 8천여 명의 입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과 뿌리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과잉 경쟁, 직종의 산업현장성 부족, 입상자 취업 저조 등 기능경기대회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 세부내용】

- 선수 선발 방식 개편, 학생부·일반부 분리 등 불필요한 경쟁 완화
- 3D프린팅·드론 등 산업 현장변화에 맞는 직종 개편 추진
- 기업 연계 등을 통한 입상자 대상 취업 지원 확대
- 22시 이후 야간교육 금지 등 건강권·학습권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

1. 과도한 경쟁구도 완화

- ① 지방대회의 경쟁 완화를 위해 전국대회 참가자격을 지방대회 1~3위 입상자에서 지방대회 우수상 입상자(종목당 1~ 4명)까지 확대한다.
- ② 전국대회는 경쟁과열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시도별 종합순위 발표를 폐지하고 국제기능을 림픽대회 방식의 공동메달제*를 도입한다.
- ③ 연이은 대회로 인한 학생 부담을 덜어주고자 단계적으로 지방대회와 전국대회를 통합하고, 대회 개최를 방학기간**으로 조정하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예시 1등의 점수가 90점인 경우 2점차(88점) 내 선수에게는 모두 금메달 수여

** 지방대회 2월 말, 전국대회 8월 말

2. 기능경기대회 수준과 현장성 향상 방안

- ① 현장성과 취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디지털 분야 직종을 신설하고 사양 직종은 폐지하는 등 운영 직종을 개편한다.
- ② 대회를 학생부와 일반부로 분리 운영하여, 학생부를 학교수업과 연계된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일반부는 수준 높은 지식과 역량을 측정하여 대회 수준을 높인다.

3. 기능경기대회 참여 환경과 여건 개선

- 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진흥원 내 ‘기능경기 특별반’을 운영*** 할 계획이다.
- ② 우수기업과 일자리 업무협약(MOU) 체결, 기업의 경기참관 확대, 전국대회와 연계한 취업 박람회 개최, 해외취업 알선 등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참가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에 나선다.

*** IT 네트워크 시스템 등 29개 직종 대상 연간 2,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2월부터 8월까지 편성운영할 예정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기능경기대회가 미래 숙련기술유망주들에게 열심히 갈고 닦은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고 ‘숙련기술 향상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같은해 전체 취득자 대비 취득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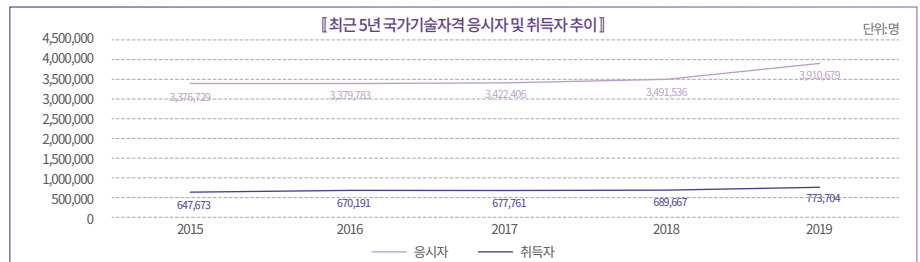
「2020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발간

» 2020년 6월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6월 22일, 197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취득자 통계를 수록한 『2020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국가기술자격 통계는 정부의 산업분야별 인력수급정책에 기여하고 국가기술자격 준비생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작성·제공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승인번호 제387004호)다.

올해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 및 취득자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중장년층인 50세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가 87,018 (11.25%)명으로 2015년 44,949(6.94%)명과 비교하여 4년 사이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중장년층의 인생 2막 설계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은퇴 전후 중장년층이 경제적 노후 대비 및 지속적 사회 참여를 위해 면허성 자격을 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통계연보가 국가기술자격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국가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구축해 국가자격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을 향한 신중년의 도전」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신중년 경력설계 방향 제시

» 2020년 7월 9일,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7월 9일 「4차 산업혁명을 향한 신중년의 도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중년의 경력설계 방향으로 플랫폼 활용을 제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확산으로 플랫폼 근로자가 늘어나고 고용 형태도 플랫폼 근로자, 프리랜서, 프로슈머 등으로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신중년의 플랫폼 활용 방향으로는 재능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 프리랜서가 제시됐다. 직접 고용보다는 분야별 전문가가 등록된 플랫폼을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현상이 늘어나므로, 신중년이 전문분야 재능을 공유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기성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연구위원은 “신중년(5060) 가운데 상당수는 고학력/고숙련을 갖춘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및 저숙련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신중년은 재취업 이외에도 개인의 건강과 자산에 따라 다양한 경력을 설계하도록 진로(프리랜서, 창업, 창직 등)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을 향한 신중년의 도전」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행사 병행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SSIFY(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2019년 1, 2기 교육생 1,000명 중 534명 취업, 2020년 3기 750명 교육 중

고용노동부 장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2기 수료식 참석

» 2020년 6월 24일,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24일(수) 14시, 멀티캠퍼스(역삼) 대강당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2기 수료식」에 참석하여 1년여 간의 훈련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삼성전자가 멀티캠퍼스를 통해 운영하는 “기업이 주도해서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수요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하는 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는 동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기술력과 훈련 인프라를 갖춘 기업, 대학 등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디지털, 그린 및 고용안정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뉴딜과 관련된 사항은 7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감정노동자 직무스트레스 관리교육 사업주훈련으로 지원

» 2020년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7월부터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훈련 과정을 사업주훈련으로 지원한다.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고 감정노동 직업군이 다양화됨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는 고용노동부 추산 약 560만 ~740만 명에 이르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30~40%에 해당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감정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주로 하여금 감정노동자의 건강 장애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이 지난 2018년 10월 시행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임상심리전문가 자문회의와 훈련 시범 운영을 거쳐 양질의 감정노동자 훈련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훈련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감정노동자 훈련은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심리평가와 명상, 호흡, 체조, 미술치료 및 웃음치료 등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포함하여 훈련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임상심리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토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25명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 과정을 운영하여 훈련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고객 응대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채 근로하는 감정노동자에게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며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건강은 기업의 성과와 연결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감정노동자 훈련 지원을 통해 기업의 훈련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업무몰입도 및 직무만족도를 높여 행복한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 설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 2020년 6월 23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6월 23일 부산광역시 서면 청년두드림센터에서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청년센터에서 청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청년센터 우수사례를 소개해 전파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수사례>

수원시 청년바람지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유통·정보통신·화학 대기업 현직자 특강을 제공함으로써 방역과 취업 지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부산시 청년두드림센터 채팅방에서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카카오 라이브톡’을 이용해 기업별 자소서 특강 등 온라인 집중 컨설팅을 실시했다. 접근이 용이한 카카오톡을 활용함으로써 취업준비생의 참여도가 높고, 즉각적인 피드백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수종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취업절벽에 내몰린 코로나 세대는 청년실업 팬데믹으로 최악의 구직 시장에 직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언택트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청년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의심 증상자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학습병행 특별조치 시행

» 2020년 6월 15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전 산업분야의 기업경영 어려움 발생과 이로 인해 신규채용 감소 및 고용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일학습병행 사업의 제한 완화,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특별조치를 6월 15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특별조치의 주요내용은 먼저, 학습근로자 참여 대상을 기존 재직기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참여규모도 해당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25% 이내에서 40%(재직·재학 동시 실시 시 최대 50%)까지 늘렸다. 또한 기존 20만 원의 훈련지원금을 40만 원으로 높이고, 타 정부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이밖에도 학습기업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3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훈련과정 개발과 인정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기존 평균 24일에서 15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훈련 실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7월부터 네이버의 일학습병행 블로그를 전면 개편하여 고객이 사업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였고, 유관기관 및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송한다. 이번 특별조치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일학습병행 블로그(blog.naver.com/run-lear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형고용센터 등 72개소 추가 설치, 고용서비스 선제적 대응

» 2020년 6월 25일,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98개소 등 현재의 고용서비스 접점 101개소에 더해, 금년 중 전국 72개 시군에 중형 고용센터 및 출장소가 설치·운영되어 고용센터 이용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25.(목)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중형고용센터 등 신규설치 및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공 고용서비스 접점 확대 계획은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가하게 될 고용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센터 접근성 및 일자리 해결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형고용센터 설치 예정지는 관할 고용·복지 서비스 수요¹⁾, 인구 및 고용센터까지의 이동거리²⁾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상주시 등 32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고용보험의 틀 밖에 있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등 고용안정망 확충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일자리와 일거리를 찾는 모든 구직자들이 고용안전망 확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더욱 촘촘하게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관계부처·노사대표·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고용서비스제도·인프라개선안 등을 심의

** 관내 사업체 수, 구인인원 및 구직건수, 차상위수급자 수 등

*** 대중교통으로 시군청에서 센터까지 이동거리 1시간 이상

중형고용센터(32개소) 지역의 고용·복지 서비스 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조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보다 규모가 작고,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 전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 취업 및 구인기업 지원 등 고용센터 업무의 일부만 수행

출장소(40개소) 고용센터 직원이 주 2~3회 지자체 등을 방문, 고용서비스 종합 안내상담 및 지역 내 고용서비스기관과 연계한 취업알선 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수험자에게 복지환원서비스 제공

» 2020년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주)한국지텔프(대표이사 김현중)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공인 영어 시험 G-TELP 응시료 50%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변리사, 세무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국가자격시험 일부 종목¹⁾ 수험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국제공인 영어시험인 G-TELP 정기시험 원서 접수 시, 응시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회장 김진우)와 업무협약을 맺고 네일 관리요금 20%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험자는 전국 1000여 개 회원 네일숍에서 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수험자 본인의 네일 관리요금을 20% 할인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에게 영화, 의료, 레저의 이용요금 할인 등 복지 환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험자 편의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여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해당 종목 및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Qnet.or.kr)에서 확인



고용노동부, 민간 혁신기관·기업·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분야 핵심 실무인재 적극 양성

» 2020년 7월 7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모두의연구소, 서울대, 삼성전자 등 민간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5년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7.7.(화) 1400, 인공지능(AI) 분야 개발자 및 실무인재 양성 훈련기관인 모두의연구소(서울 강남구 소재)를 찾아, 신기술 분야 민간혁신기관, 삼성전자-서울대 등 15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신기술 훈련과정을 운영중인 기관들의 사례들을 공유(모두의연구소, 엘리스, 멋쟁이 사자처럼, 네이버 커넥트 등)했는데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모두의연구소, 엘리스 등은 기업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직접 훈련생에게 제시하고, 이를 자기주도(또는 동료와 함께)로 풀어나가는 프로젝트 실습 훈련(Project based training)을 실시하는 한편 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개발하여 교강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식 훈련을 벗어나 쌍방향의 개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 혁신훈련기관 및 주요대학 등 운영사례 】

■ 모두의연구소

-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 자기주도학습 유도, 강사가 없는 인공지능 혁신학교 ‘AIFTEL’ 설립

■ 엘리스

-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및 상호작용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 구축·공급
- 카이스트, 서울대, 에스케이(SK) 등 국내 주요 대학 및 기업에서 데이터 기반 교육 운영

■ 멋쟁이 사자처럼

- 직장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보기술 분야 핵심 교육과정 제공
- 탈북자, 농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정보기술 교육 무료 제공

■ 네이버 커넥트

- 온·오프라인으로 정보기술 분야 교육 무료제공
- 네이버 등 현업 종사자가 1:1로 지도 제공(유료)

■ 서울대 빅데이터·핀테크 과정

- 빅데이터·금융 기술(핀테크) 관련 분야의 서울대 교수 15인과 업계 최고 전문가 참여
- 비전공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 최고수준 훈련 실시(2018년~)

참석자들은 디지털 신기술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는데 통제중심의 정부지원 제도를 개편하여 훈련기관들이 혁신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유연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비대면사회를 넘어 온택트(on-tact)사회로 재편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로의 선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미래형 직업훈련체제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실무인재가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시장에서 역량이 검증된 혁신적인 훈련기관, 기업과 대학 등의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두의 연구소, 엘리스, 멋쟁이 사자처럼, 코드잇, 프로그래머스

2020년 5월 고용동향

» 고용노동부,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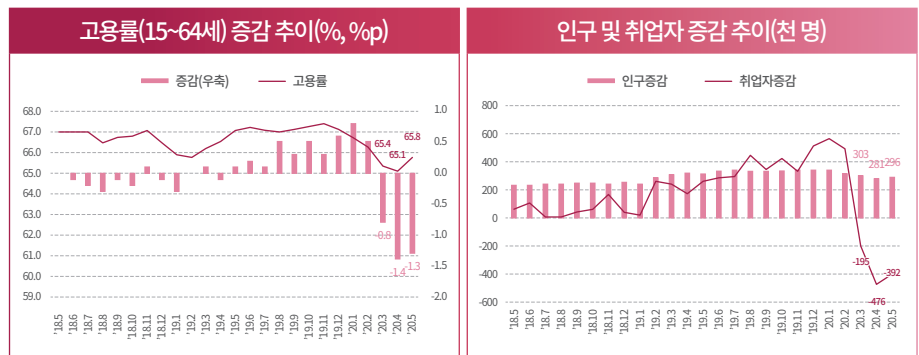
주요결과

- ❖ 5월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충격 완화 등 영향으로 4월보다 감소폭이 축소되며 전년동월대비 39.2만 명 감소
- ❖ 고용률은 15세이상(△1.3%p)과 15~64세(△1.3%p)에서 모두 하락, 실업률(+0.5%p) 상승, 경제활동참가율(△1.0%p) 하락
- ❖ 상용직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는 등 고용의 질 개선세도 둔화되는 모습

취업자 및 실업자

5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9.2만 명 감소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 명): (‘20.1)56.8 (2)49.2 (3)△19.5 (4)△47.6 (5)△39.2



제조업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폭 확대

* 수출(전년비, %): (‘20.1)△6.6 (2)3.6 (3)△1.4 (4)△25.1 (5)△23.7

*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20.1)0.8 (2)3.4 (3)△2.3 (4)△4.4 (5)△5.7

건설업 입주물량 감소 등 영향으로 감소 지속

* 건설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20.1)0.5 (2)△1.0 (3)△2.0 (4)△5.9 (5)△6.1

서비스업 대면서비스업 분야 중심으로 감소세 완화

*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20.1)46.8 (2)38.2 (3)△29.4 (4)△44.4 (5)△33.3

- 숙박음식업은 생활 방역 전환 등 영향으로 감소폭 축소

* 숙박음식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20.1)8.6 (2)1.4 (3)△10.9 (4)△21.2 (5)△18.3

- 온라인 개학·학원 개강 등으로 교육서비스업 감소폭 축소

* 교육 취업자(전년비, 만 명): (‘20.1)0.7 (2)△1.0 (3)△10.0 (4)△13.0 (5)△7.0

- 예술·스포츠·여가업(+1.1 → +2.8만), 운수·창고업(+3.4 → +5.0만) 증가폭 확대

중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둔화세 지속

* 지위별 취업자 증감(만 명, 전년비 '20.4 → 5월): (상용)40.0 → 39.3 (임시)△58.7 → △50.1 (일용) △19.5 → △15.2 (고용有)△17.9 → △20.0 (고용無)10.7 → 11.8 (무급)△2.2 → △5.0

실업자는 감염증 우려 감소 등에 따른 구직 재개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3.3만 명 증가한 127.8만 명 기록

* 실업자(만 명): (‘20.1)115.3 (2)115.3 (3)118.0 (4)117.2 (5)127.8

- 증감(전년비, 만 명): (‘20.1)△7.1 (2)△15.0 (3)△1.7 (4)△7.3 (5)+13.3

* 구직 재개로 5월 경제활동인구 감소폭(△25.9만 명)이 4월(△55.0만 명)보다 크게 축소

◇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0.5%p 상승(4.5%)

* 실업률('19.5 → '20.5, %): 4.0 → 4.5 (+0.5%p)

* 연령별 실업률 증감(전년비, %p): <15세이상 전체>+0.5 <15~64세>+0.5 <15~29세>+0.3 <30대>+0.2 <40대>+0.5 <50대>+1.1 <60세이상>+0.5

5월 일시휴직자는 102.0만 명(+68.5만 명)으로 증가폭 크게 축소

* 일시휴직자(만 명): ('20.1)54.6 (2)61.8 (3)160.7 (4)148.5 (5)102.0

- 증감(전년비, 만 명): ('20.1)△2.9 (2)14.2 (3)126.0 (4)113.0 (5)68.5

▮ 청년(15~29세) 고용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청년인구 감소, 도소매업 등 청년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 둔화, 신규채용 연기 등으로 감소세 지속

* 청년층 인구(전년비, 만명): ('20.1)△8.8 (2)△11.5 (3)△12.8 (4)△14.9 (5)△13.9

*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명): ('20.1) +6.5 (2)△4.9 (3)△22.9 (4)△24.5 (5)△18.3

◇ 청년층 고용률은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큰 폭 하락(△1.4%p), 실업률(+0.3%p) 및 확장실업률(+2.1%p) 동반 상승

* 청년고용률('19.5 → '20.5, %): 43.6 → 42.2(△1.4%p) / 청년실업률('19.5 → '20.5, %): 9.9 → 10.2(+0.3%p) 청년 확장실업률('19.5 → '20.5, %): 24.2 → 26.3(+2.1%p)

▮ 평가 및 대응

5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세가 완화되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

◇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았던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 둔화가 완화된 것이 주요인

* 업종별 취업자 증감(만 명, 전년비, '20.4 → 5월): (제조)△4.4 → △5.7 (건설)△5.9 → △6.1 (서비스) △44.4 → △33.3 [(숙박음식)△21.2 → △18.3 (교육)△13.0 → △7.0 (보건복지)7.7 → 13.1]

◇ 3월(160.7만 명)·4월(148.5만 명) 역대 최고수준을 나타냈던 일시휴직자는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며 102.0만 명 기록

고용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취업자가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층 중심으로 세 달 연속 감소하며 고용시장 어려움이 지속

◇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조속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 「55만개+α 직접일자리 신속 공급방안」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 3차 추경안이 국회통과(7.3.)됨에 따라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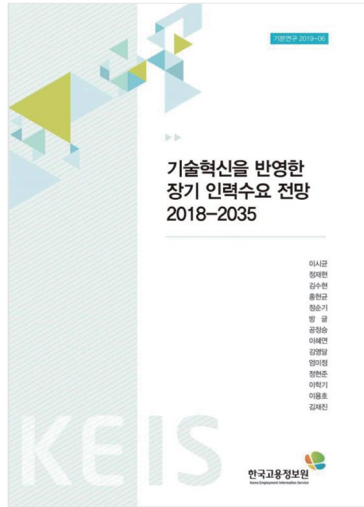
기술혁신을 반영한 장기 인력수요 전망

▶ 한국고용정보원, 2020년 7월

💡 이시균 외 13명

주요내용

- 기술혁신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2035년까지 인력수요 전망 결과 도출
- 사업체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술혁신의 산업별, 직업별 영향을 고려해 두가지 시나리오별 (기준전망과 혁신전망)로 장기 인력수요 변동을 예측
- 전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산업별 ICT 투자 계정, 산업연구원 부가가치 전망 등 자료 활용
-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 및 직업의 인력수요 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력 양성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혁신 공동체 활성화 방안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년 6월

💡 이상돈, 김종우, 박동열, 윤여인, 최호

주요내용

-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인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교육-노동시장의 원활한 연계 활성화(고도화) 필요
- 특히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혁신역량과 적합한 인재의 공급(교육)은 가장 근본적인 국가균형발전의 토대
- 이에 지역 전략산업의 분석,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분석, 지역 교육훈련체계의 분석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의 현실을 살펴보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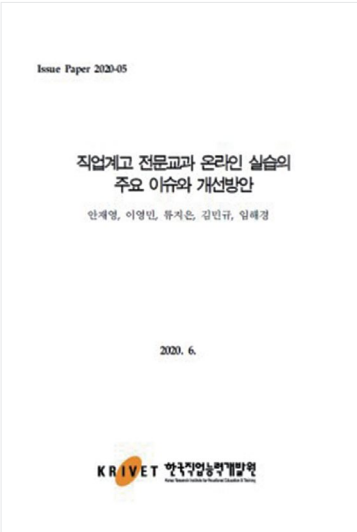
*공동체(communit)란 정부 소속 지역 기관, 대학, 기업, 지방정부, 연구기관 등 지역의 이해관계자의 총합을 의미



직업계고 전문교과 온라인 실습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년 6월

☀ 안재영, 이영민, 류지은, 김민규, 임해경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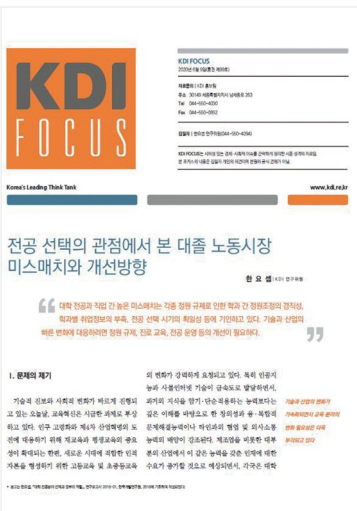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 결정에 따라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의 전문교과 실습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
- 전문교과 실습은 특성상 오프라인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온라인 실습에 대한 어려움과 이슈가 발생
- 이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전문교과 온라인 실습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와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실습수업의 단계별 상황과 인프라 측면에 대하여 전공계열별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 이를 통하여 온라인 실습의 효과적인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온라인 실습의 교수·학습 및 평가와 인프라, 온라인 실습의 운영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와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시



전공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

▶ 한국개발연구원, 2020년 6월

☀ 한요섭



주요내용

- 대학 전공과 직업 간 높은 미스매치는 각종 정원 규제로 인한 학과 간 정원조정 경직성, 학과별 취업 정보의 부족, 전공 선택 시기의 획일성 등에 기인하므로, 기술과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려면 정원 규제, 진로 교육, 전공 운영 등 개선 필요
- 기술과 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교육 분야의 변화 필요성은 더욱 부각
- 우리나라 대졸자의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는 50%에 달하여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
- 수도권 대학에 대한 총량적 정원 규제가 전공별 정원조정의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수 전공 정원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및 안정성 격차는 전공 선택의 쏠림 현상을 야기
- 4년제 대학 신입생들의 기대소득은 평균적으로는 졸업생의 실제 소득과 일치하지만, 세부 그룹별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문·이과 선택 및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이 강제됨에 따라 사후적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
- 수도권 정원 규제의 부분적 해제와 특수 전공 정원의 적절성에 대한 정기적 재검토 및 진로교육의 강화를 위해 진로학기제의 내실 있는 운영, 진로전담 교사의 추가 배치와 학과 단위의 노동시장 성과 정보가 공개될 필요



6.12. 비대면·4차 산업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고시

6.13.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장 코로나19 방역 조치 점검

6.16.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최우수 공동훈련센터 시상

6.24.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방안 발표

6.24.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2기 수료식

7.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혁신훈련기관 기업 현장 간담회

7.8.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개편 시행

7.9. 2020년 하반기 일반고 특화과정 선정 결과 공고

7.15. 2020년 하반기 운영 훈련과정 통합심사 선정 결과 공고

7.21. 공단-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야 해외진출 지원 협약 체결

7.24. 제6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심의위원회 개최

7.31. '20년 대한민국명장 심사위원회 개최

7월 넷째주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 신문광고

접수(7.6.~8.7.) 제1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7월~11월 2020 청년패널조사 실시

7.10. 한국진로교육학회 제 50차 춘계학술대회 개최(웹세미나로 진행)





7.7~7.9. Learning Factory 활성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

7.9. 정보통신 분야 폴리텍 정책자문회의

7.15. 삼성 멀티캠퍼스 MOU 체결

7.23.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망과 직업교육의 역할 국회포럼 개최

6.3.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PC 기증식

6.17. 청주고인쇄박물관 업무협약식

6.19. 2020년 상반기 직원 신규채용

6.25~6.26. 집중학기제 졸업연구작품 전시회

7.1. 공군교육사령부 교육·학술분야 업무협약식

7.6. 대전·세종·충남지역 국회의원 및 대학총장 간담회

7.15. 충청남도교육청 미래교육 협력 업무협약식

7.15. (사)천안시기업인협의회 업무협약식

직업능력심사평가원

7.10. 제3차 원격훈련과정 심사 결과 발표 (총 1,900과정)

7.10. 예정 '20년도 하반기 운영 일반고 특화 심사 과정심사 및 선정 결과공고

7.15. 예정 '20년도 하반기 운영 통합심사 과정 심사 및 선정 결과공고

7월 중순 예정 '20년도 인증평가 2단계 역량평가(신규훈련기관) 결과발표

7.31. 훈련이수자 평가 운영 (6차 결과발표, 7차 현장평가, 8차 접수)

6.3~6.4. 대한민국 고졸 인재 일자리콘서트 '직업계고 정책 홍보관'

6.18. 직업계고 교육과정 중앙지원단 연수

6.23. 제74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코로나19 시대의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정책과 대응 방향」

6.25~6.26. 2020년 ASEAN 직업교육협력 컨설턴트 연수

7.8~7.17. 마이스터고(23개교) 학교발전계획 컨설팅

7.14~7.15. 2020년 제2차 직업계고 학점제 중앙 컨설턴트 연수

7.23~7.24. 2020년 상반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마이스터고 담당자 워크숍



하반기에는 #비대면 방식, #스마트 훈련 으로 더 새로워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만나세요~

- 비대면 방식 스마트 혼합훈련 948개 과정
-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625개 과정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지역에 대한 훈련공급 확대

참여 방법

직업훈련포탈(HRD-Net)/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은 고용센터 방문·상담후 참여 가능

훈련 안내

직업훈련포탈(www.hrd.go.kr)에서 확인